

웅진에너지, 삼성전자에 웨이퍼 공급

태양전지용 고순도 단결정 공급계약 체결 ... 제스솔라 이어 판매 호조

웅진에너지가 삼성전자에 태양광 웨이퍼를 공급하게 됐다.

웅진에너지(대표 유학도)는 삼성전자에 410억원(2009년 매출액의 34.6%)의 태양전지용 고순도 단결정 웨이퍼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12월22일 공시했다.

12월17일에는 제스솔라와 52억7600만원 상당의 웨이퍼 공급계약을 체결했으며, 태양광 웨이퍼 및 잉곳 수요 증가에 대응해 12월 초 생산능력을 확대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.

<화학저널 2010/12/22>